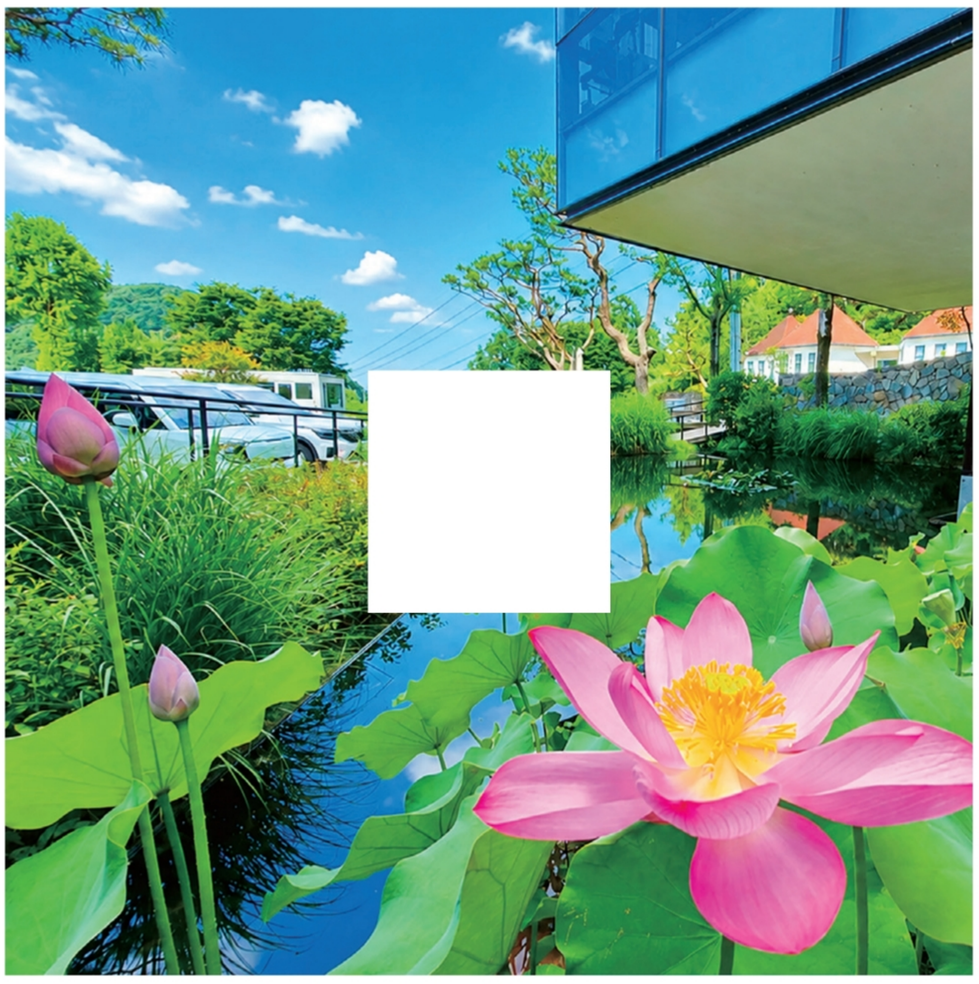
마음사랑

2026 가을호 **Vol.104**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큰 사랑 펼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마음사랑

2026 가을호
VOL.104

CONTENTS

04 포토에세이

06 여는 글_살아있는 오랜기억

건강

건강길라잡이
08 자해와 자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마음의 신호

메디컬 칼럼
10 질병에 따라오는 상실에 대해

기획

특집
12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첫걸음,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14 오픈다이얼로그

스토리

고맙습니다
16 안전한 회복을 위한 동행 마취하 전기자극치료의 협진 파트너

마음나누기
18 서툰 목소리들이 만나 희망의 화음을 노래하다
20 술이 아닌 나를 마주하는 용기를 얻다

열정 36.5
22 반복되는 관계의 갈등, '나'를 객관적으로 마주하는 힘

여행

마음따라 힐링산책
24 전주 아중호수 둘레길 & 아중호수도서관

뉴스 & 안내

26 병원&재단소식
30 친절직원
31 가족교육
32 셔틀버스 안내
34 마음사랑후원회
35 전문화된 집중치료 특성화 병동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소식지 <마음사랑>
2026 가을호 **VOL.104**

발행처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5534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발행인 이건학
발행일 2026년 09월 01일
전화 063)240-2100
팩스 063)240-2117
기획·편집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총무팀(홍보위원회)
디자인 제작 휴디자인 063)285-4092

마음사랑 소식지는
매년 봄과 가을에 발행됩니다.
병원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고객의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_。

나·편·안

나를 살피는 마음
업무 전 마음정돈

편안함 이어가기
차분하고 세심하게 고객에게 신뢰를

안심 속 빠른회복
마음까지 보듬는 진심케어

마음이 가장 힘든 순간,
따뜻한 손길과 때를 놓치지 않는 치료는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사랑병원은 오늘도 가장 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내일을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과외지도를 같은 반 친구들과 잠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선생님의 자취방이 변두리에 있어 밭길을 지나가야 했지요. 방 한 칸 부엌 한 칸으로 부엌을 통해 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여름 비가내린 길을 걷느라 신발이 젖어있었지요.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신발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 주셨지요. 선생님이 외우라고 가르치신 푸쉬킨(A.Pushikin,1799-1837)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중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는 구절은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놓고 마루에 걸터앉으면 할머니는 과일 접시를 제 앞에 놓고 '어서 먹어라'하시며 살며시 몸을 굽혀 제 양말을 벗겨주곤 하셨습니다. 겨울철엔 연탄아궁이 옆에 두었던 따뜻한 운동화를 건네주셨던 할머니가 나이 들어 생각이 많이 났지요. 늘 조용히 제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할머니. 닮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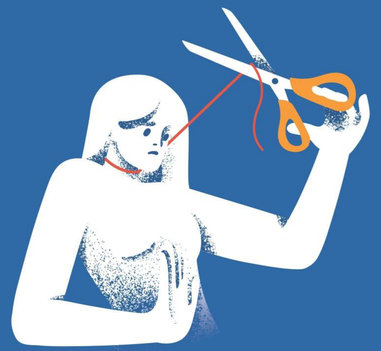
1990년대 아들 둘을 데리고 뉴욕에서 몇 개월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운이 좋게 ESL(English as Second Language) 전문가를 만나 아이들이 공부했지요. 짧은 기간 머무는지라 살림살이도 없고 코카콜라 테이블을 식탁으로 사용했지요. 13달러의 허접한 믹서기를 사서 선생님이 오시면 토마토주스를 드리곤 했는데, 그 미국 선생님은 토마토를 한 개 두 개 가져다주셨습니다. 직접 키운 거라고요. 어느 날 댁으로 초대를 해 가보니 당시 미국에선 보기 드문 아주 소박한 연립주택의 정말 코딱지처럼 붙은 작은 땅에서 토마토 두세 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걸 키워 저희에게 갖다주셨을 거란 생각이 드니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 뭉클했던지... 아마 선생님은 거의 드실게 없었겠다 싶었지요. 수년이 흘러 한국이 금융위기로 IMF 관리를 받을 땐 무얼 보내주면 좋겠냐고 전화로 묻기도 하셨지요.

손자 부탁이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할아버지가 출장 중이라 손자와 저 둘만 있는 주말 아침 이런저런 얘기 하며 몸을 쓰다듬어주니, 일어나지 말고 그렇게 오래 있자고 하는 손자의 제안에 얼른 "좋아 좋아!" 했습니다. 그 녀석이 오래 간직할 추억일 것 같아서요. 더 마음 내어 다독 다독.

자식을 키우고 또 손자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삶에서 오래 살아남는 기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배려와 친절,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는 분들도 언젠가 치료의 과정은 잊더라도, 누군가 건네준 따뜻한 미소와 기다려 준 마음, 다정한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서로를 조금 더 살피며, 오래도록 남을 따뜻한 기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 **김성의** 이사장

자해와 자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마음의 신호



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보영 진료부원장

많은 사람이 자해와 자살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곤 합니다. 두 행동 모두 깊은 심리적 고통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 목적과 심리적 배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해와 자살의 차이

ⓥ 자해(Self-Harm)

자해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견디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이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감정을 견디기 위한 대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해와 자살은 같은 행동은 아니지만 서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자해는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자해가 확인되면 자살 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살(Suicide)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끝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극심한 절망감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자살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전문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싶어서라기보다,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적절한 치료와 지지를 통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으므로,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도움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해와 자살의 원인

자해와 자살은 다양한 심리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해(Self-Harm)

- **감정 조절**: 마음의 고통을 신체적 통증으로 전환하여 일시적으로 감정을 완화하려는 경우
- **자기 처벌**: 죄책감이나 자기비난이 심할 때 자신에게 벌을 주려는 마음이 작용하는 경우
- **현실감 회복**: 해리 증상이나 현실감이 떨어질 때 통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경우
- **압도된 감정 표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

자살(Suicide)

-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절망감**: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 **지속되는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삶의 희망을 잃는 경우
- **정신건강의 어려움**: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
- **반복적인 자해**: 반복적인 자해는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입니다.

자해와 자살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황스럽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하지 않기	"왜 그런 짓을 했어?", "정신 차려", "의지가 약해서 그래"와 같은 말은 상대를 더욱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공감하며 들어주기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와 같이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고 들어주세요.
혼자 두지 않기	자해나 자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혼자 두지 말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전문가와 연결하기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즉시 도움 요청하기	구체적인 자살 계획이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이나 119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

자해와 자살 충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평가와 도움이 필요한 문제이며,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 어려움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와 상담 치료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건강한 대처 방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살 계획이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주변 사람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해와 자살 충동은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와 지지를 통해 회복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혼자 견디기보다 주변 사람과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에 따라오는 상실에 대해

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경민 진료과장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만나고, 또 떠나보내게 됩니다. 좋았던 것이나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일, 상실은 대개 마음을 아프게 하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실도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예전처럼 몸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일, 오랫동안 꿈꿔온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 아이가 예상했던 모습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들 처럼요. 상실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잃는 것 뿐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같은 정체감이나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자라나가겠지.' 같은 기대, 또 소망이 담긴 가능성과 미래를 함께 잃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큰 상실일수록 슬픔보다 '아닐 거야.'라고 부정하는 마음이 먼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질환을 진단받을 때 '그건 병이 아니라 누구나 조금씩은 겪는 일이지 않나?', '잘못 진단한 것일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하고 덮어두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희망적인 확언을 들을 때까지 여러 기관을 옮겨 다니며 '완벽한 치료'를 찾느라 정작 필요한 치료를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료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이나 불편함, 치료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지금 만난 치료진들이 무능하거나 불성실해서, 또는 이 치료법이 잘못된 것이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 상황에 분노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아지려 하기보다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이'를 잃는 것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질병은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 많은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중 중요한 부분이 흔들릴수록, 또 아프게 된 사람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을수록 상실의 슬픔은 더욱 클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상실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슬퍼해야 합니다. 슬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자기상이나 소망하던 미래와 작별을 하며 슬퍼하는 과정을 애도라고 합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면, 곧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라고 희망을 붙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희망'은 회복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애도는 현실을 체념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상실 후의 현실과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한 사람은 더 회복하고, 때로는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지금, 여기'의 나에게 가능한 삶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치료과정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더 중요한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치료진과 함께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나갈 힘도 생깁니다.

반대로 애도가 충분하고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해서 '상실 이전의 삶'을 되찾아 줄 마법같은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새로운 병원,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희망만을 찾아다니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치료 자체가 상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예전과 똑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지금의 삶 안에서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변화와 상실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충분히 애도하며, 회복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첫걸음,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글. 이건학 병원장

흔히 '응급상황'이라고 하면 심장마비나 대형 사고로 인한 외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역시 신체만큼이나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환청이나 망상이 갑작스럽게 심해져 현실을 분간하기 어려워지거나, 극심한 충동 조절의 어려움 및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상태를 정신과적 응급 및 급성기 상태라고 부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환자가 잠시 유약해졌다고 애써 부정하거나 가족이 케어를 소홀히 한 탓이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이며,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치솟거나 당뇨 환자가 고혈당 쇼크에 빠지듯 정신질환의 급성기는 뇌의 신경전달물질 체계가 통제력을 잃고 과부하가 걸린 '의학적 응급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 상태에서는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 완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뇌의 과흥분 상태와 심한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은 뇌 세포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어서 만약 이 시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지체하면 질환이 만성화될 확률이 높아지며 나중에는 일상적인 기능의 저하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 빨리 전문적인 의학적 개입을 시작한다면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향후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이나 기능의 회복 정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급성기에 신속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증상을 개선하고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환자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전북유일(상급제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집중치료

의사인력 3배 배치
간호인력 5배 배치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이하 본원이라 함)은 개원 시부터 24시간 상담 및 입원 시스템을 갖추고 급성기 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빠르고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부에서도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기에 집중치료를 제공하여 빠른 회복과 사회복귀를 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급성기치료 활성화,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관리료)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원도 2022년부터 모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이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2026년 7월 1일부터 본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는 끝이 아닌, 회복의 시작입니다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의 엄격한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급성기 치료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치료환경이 요구되었기에, 이번 지정을 통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가 시급한 초발환자 등에 대해 보다 집중적이고 안전한 급성기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집중치료 과정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신속한 약물치료와 집중적인 면담 뿐 아니라 전문화된 프로그램과 보호자 상담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급성기나 응급상황에서 회복이 된 이후에도 회복기와 재활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와 가족의 품으로 복귀를 하는 본원의 치료시스템에 따라 연속성 있는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나 급성기에 대한 집중치료는 마음의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하며 체계적인 치료시스템을 인정받은 이번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은 지역사회와 손잡고 환자의 마음건강 회복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픈다이얼로그
Open Dialogue(OD)

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고요한 진료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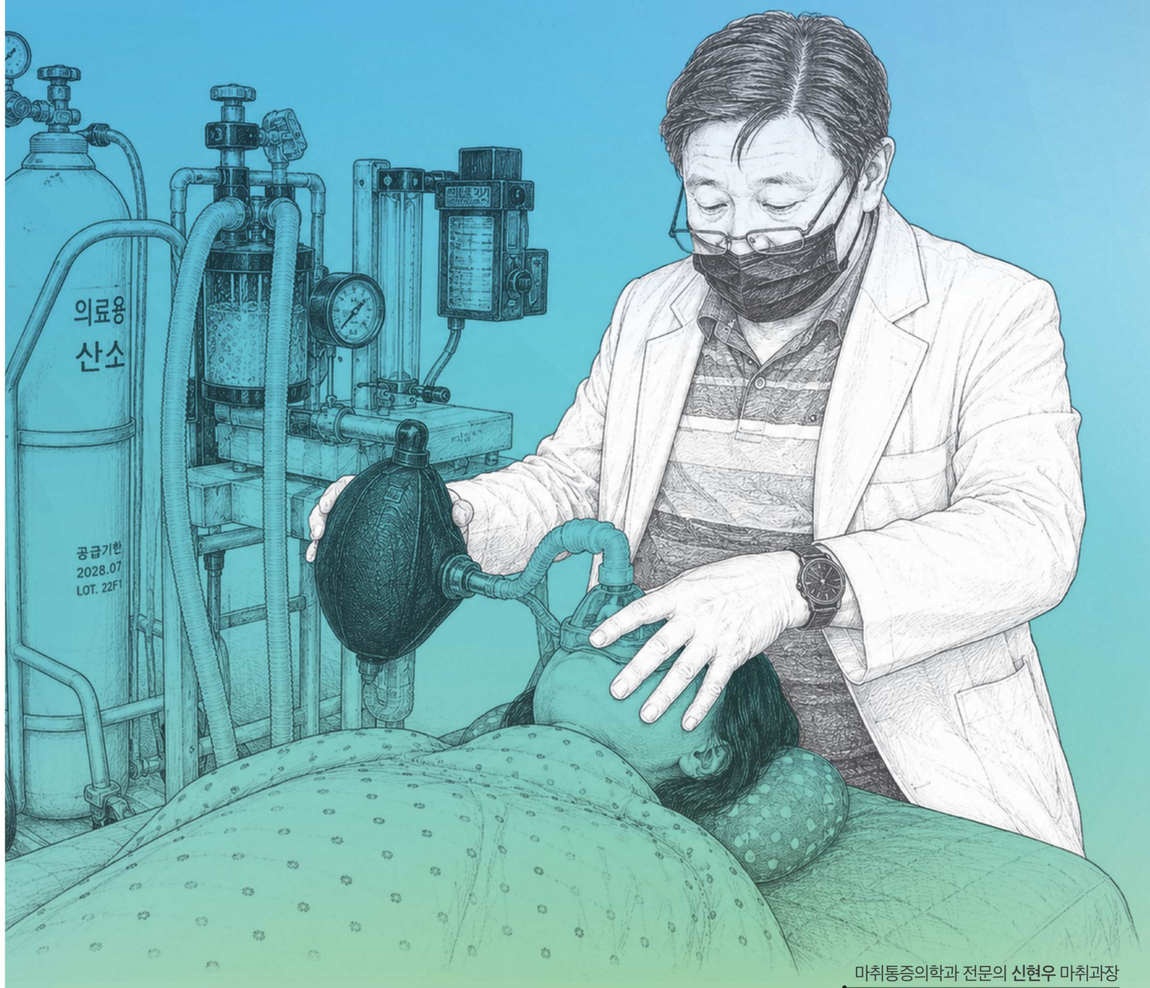
회복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증상을 확인하고 진단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묻고 그 이야기를 함께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픈다이얼로그는 정신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와 가족, 가까운 사람들, 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증상과 그에 따른 경험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는 치료적 접근입니다. 치료진이 미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 가족의 관점 여러 전문가의 견해가 충분히 표현되도록 합니다. 치료에 관한 논의와 결정도 당사자가 참여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신적 위기 속에서는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듭니다. 당사자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가족은 두려움 속에서 답을 찾으며, 치료진은 증상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오픈다이얼로그에서는 혼란스러운 경험이 언어로 표현되도록 환자와 가족, 치료진 간의 단절된 관계는 다시 잇도록 돕습니다. 누가 옳은지를 가리기보다 서로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정신건강 세미나에서도 회복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결과가 아니라 당사자·가족·치료진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나누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말을 듣는 과정은 당사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세우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며, 치료진에게는 증상을 너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픈다이얼로그가 약물치료나 입원치료, 위기 개입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와 안전 조치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고, 치료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도록 돕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과 선택을 지키고 관계와 일상을 회복하여,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회복은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 주는 답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 가는 길입니다.

안전한 회복을 위한 동행 마취하 전기자극치료의 협진 파트너

글. 간호부 **김소리** 책임간호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신현우** 마취과장

M-ECT 시행기간: 7년 8개월
누적건수: 약 3,000건

회복을 향한 가장 안전한 길, M-ECT 협진 시스템

마취하 전기자극치료(M-ECT)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 양극성장애,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질환 대상자의 회복을 돕는 치료입니다. M-ECT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비롯한 여러 의료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사랑병원은 **전라권 최초, 유일**하게 M-ECT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오랜 임상경험과 협진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든든한 동반자, 신현우 과장님

마음사랑병원의 M-ECT 치료가 오늘의 안정적인 협진 체계를 갖추기까지, 신현우 과장님의 오랜 헌신이 함께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8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마음사랑병원 M-ECT 치료의 전 과정에 동행하며 마취와 회복을 책임져 오셨습니다. 과장님의 역할은 마취를 시행하는 순간을 넘어 치료 전후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앞둔 분들의 작은 변화까지 살피고, 긴장된 마음을 다독이며, 편안히 회복실에서 눈을 뜨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치료실로 들어서는 대상자에게 건네던 짧은 안부와 차분한 설명은 낯선 치료를 앞둔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책임감과 세심한 진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마음사랑병원 M-ECT 치료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함께 지켜온 시간, 계속되는 회복의 길

M-ECT 치료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의료진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긴밀하게 호흡할 때 비로소 안전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 그 한 축을 맡아주신 신현우 과장님과 함께 쌓아온 협진의 경험과 가치는 새로운 동행 속에서도 소중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M-ECT 마취를 담당하고 계신 송윤식 과장님은 대상자마다 다른 건강상태와 치료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개별 상태에 맞추어 마취의 깊이와 약물 용량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치료 순간의 안전뿐 아니라 시술 후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송윤식 과장님의 차분하고 세심한 소통은 치료 과정 전반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로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부분을 함께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M-ECT 팀의 호흡 역시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대상자가 치료를 위해 잠이 들고 다시 편안히 눈을 뜨는 모든 순간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은 자리에서 M-ECT 치료를 함께해 주신 신현우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만들어 온 협진의 가치를 이어받아, 마음사랑병원은 앞으로도 대상자의 안전과 편안한 회복을 위한 동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송윤식** 마취과장

주 3회 시행 :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후)

문의 063-240-2100

서툰 목소리들이 만나 희망의 화음을 노래하다

글. 낮병원 **강하라** 책임간호사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지쳤을 때, 세상의 소리는 그저 아득한 소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낯선 불안과 깊은 우울 속에서 세상의 문을 닫았던 이들이 마음사랑 낮병원에 모였습니다. 홀로 낼 때는 그저 작고 가녀린 외침 같았던 서툰 목소리들. 함께 호흡을 맞추며, 어느새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집니다.

마음을 담은 소리 합창단

쉼표만 가득했던 일상에 찾아온 '마음을 담은 소리'

마음사랑 낮병원은 회원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과 재활 중심의 치료 환경입니다. 공예, 문학, 장구, 플루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매일 낮병원을 채우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낮병원의 자랑, '마음을 담은 소리' 합창단의 연습 시간입니다.

예선 탈락이라는 이름의, 가장 아름다운 도전

[이○님 회원의 이야기]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제 존재 자체가 소음 같았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무서웠죠. 하지만 합창단에서 제 파트를 맡고, 부족한 제 목소리가 다른 분들의 목소리와 섞여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걸 보며 처음으로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느꼈습니다. 올해 초에는 우리가 열심히 연습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합창대회 예선에 도전했어요. 비록 본선 무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우리의 노래를 마쳤을 때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였으니까요. 지금 새로운 대회를 준비하는 매일이 정말 설레고 행복합니다."

올해 초, '마음을 담은 소리' 합창단은 커다란 도전에 나섰습니다. 비록 예선 심사용 영상 속 노래였지만, 카메라를 마주하고 진심을 다해 부른 노래는 그 자체로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비록 예선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어도, "우리도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강력한 사회복귀의 신호탄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합창단은 다가올 새로운 무대를 목표로,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더 단단해진 화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혼자 앓지 마세요, 함께 부르는 회복의 노래

[낮병원 치료진 인터뷰]

"처음 합창단 이름을 지을 때, 회원들이 '마음을 담은 소리'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예쁜 이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습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음정이 조금 흔들려도, 박자가 반 박자 늦어도 그 안에는 '나 좀 알아달라'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정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알약 하나가 뇌의 화학 물질을 바꾼다면, 이 합창은 굳어있던 마음의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타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내 목소리를 얹을 수 있는 이 경이로운 과정 속에서, 회원들은 이미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아름다운 불협화음이 멋진 화음이 될 때까지 곁에서 묵묵히 베이스를 깔아줄 뿐입니다. 혼자 부르는 노래는 외롭지만, 함께 부르는 노래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홀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사랑 낮병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마음을 담은 소리'가 당신의 손을 잡고, 다시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술이 아닌 나를 마주하는 용기를 얻다

글. 햇살클리닉 입원환자 김○영님 _

결혼 후 마주한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 품을 떠나가던 순간들. 세상이 텅 빈 것만 같은 외로움과 허전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에 지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찰나, 사업가로서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책임감과 갱년기·폐경기로 인한 급격한 몸의 변화까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겉으로는 버텨내고 있었지만, 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우울감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것은 결국 '술'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음주는 제 일상을 조금씩 잠식해 나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고 만사가 귀찮아졌습니다.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날이 선 짜증이 솟구쳤고, 가장 가까운 내 편이어야 할 남편과 자녀들에게 무지막지한 말과 상처 주는 행동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지인들과도 스스로 벽을 쌓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단절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도움을 요청해 보아도, 다들 자기 힘들다는 하소연만 늘어놓을 뿐 정작 제 아픔에는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고독 속에 갇혀 지내던 중, 결국 가족들의 간곡한 권유로 병원 입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거세게 반대하고 저항했습니다. 내가 왜 입원까지 해야 하는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입원을 결심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참 치료를 받길 잘했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듭니다. 입원 초기에는 그저 아무 정신없이, 멍하니 앉아 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을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인화 교육이 거듭될수록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나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그 인정 뒤부터 몸과 마음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길을 혼자 걸었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을 잃은 저를 따뜻하게 잡아주신 모든 의료진분들과 깊은 울림을 주신 전인화 교육 강사님, 그리고 영적인 위로를 전해주신 김도형 목사님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병원 생활 속에서 마치 집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봐주신 햇살클리닉 간호사님과 보호사님의 온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저는 이제 술이 아닌 나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보내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소중한 회복의 여정을 꿋꿋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독치료센터 프로그램

- 전인화 교육
- CRCT (조건반사제어법)
- 술없는 인생
- 온전한 생활
- ACT(수용전념치료)
- 동기강화 집단치료
- 감정조절
- 사이코드라마(심리극)
- 인지행동치료
- 중독학
- 12단계 집단치료
- 용서
- T.A. 알코올중독 자조모임
- 변화단계 그룹치료
- Re:Born 도박중독 자조모임
- 도박심층집단
- 도박시청각교육

반복되는 관계의 갈등, '나'를 객관적으로 마주하는 힘

글. 임상심리실 **황화정**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tvN 「이호선 상담소」에서 '호랑이 심리상담가'로 주목받는 이호선 교수. 그의 솔루션이 대중에게 속 시원한 '사이다'로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한 독설이나 직설적인 화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게 하는 '자기 객관화의 통찰'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으면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며 원인을 상대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진정한 변화는 타인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기질과 성향'의 발견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동일한 갈등을 되풀이하는 나의 행동 패턴은 놓치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나의 어떤 반응과 태도가 갈등을 반복시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돕는 유용한 지표 중 하나인 TCI(기질 및 성격 검사)는 타고난 유전적 요소인 기질(자극추구·위험회피·사회적 민감성·인내성)과 후천적으로 성숙시킨 성격(자율성·연대감·자기초월)을 나누어 측정합니다. TCI를 통해 나와 상대의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꿀 수 없는 선천적 기질의 차이와 후천적 성격을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나 보다"라는 주관적인 오해에서 벗어나 나와 상대방 고유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친밀함 속 자율성을 지키는 '적정 거리'의 힘

자신과 타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마주했다면, 다음 단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정 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흔히 좋은 관계를 '선이 없는 끈끈함'으로 오해하여, 사랑이나 친밀함이라는 미명 하에 상대의 영역을 무분별하게 침범하거나 제어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호선 교수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은 거창한 사건보다, 가까운 사이에서 무심코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우리는 편한 사이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반복될수록,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쌓이기보다는 오히려 수복하기 힘든 관계의 균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족을 비롯해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편하게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조심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타인은 타인임을 인정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대화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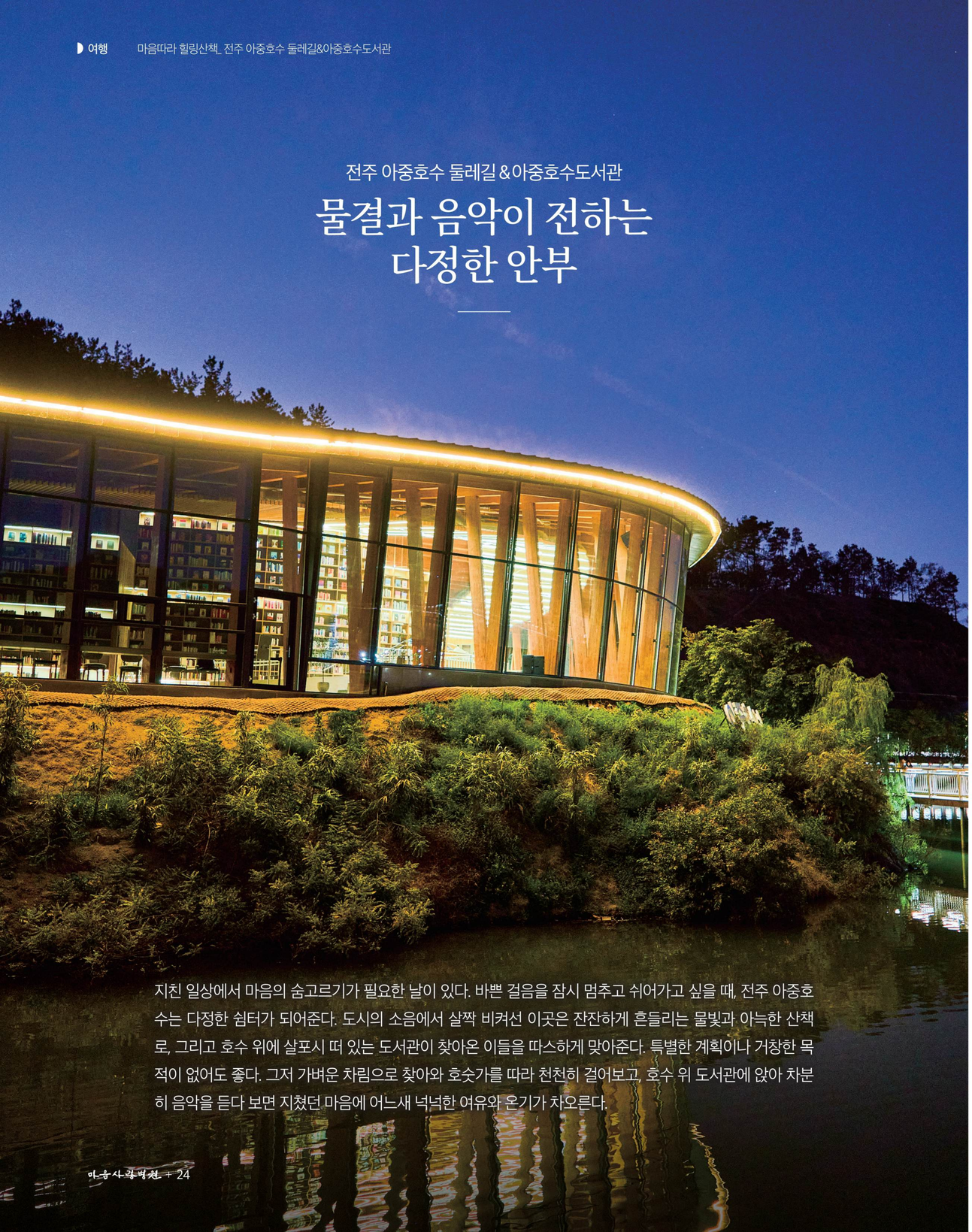
나-전달법(I-Message)

대화의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꿔보세요. "너 때문에 화가 나"라는 공격적 언어 대신, "네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나도 불안해져"와 같이 나의 주관적 감정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면 상대방의 방어기제를 낮추고 건강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Time-out)

감정이 격해져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때는 "지금은 감정만 앞서니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라며 일시적인 물리적·심리적 공간을 확보하세요. 상처 주는 말이나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막아주는 훌륭한 보호막이 됩니다.

성숙한 관계란 타인을 내 틀에 맞추어 개조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의 타고난 특성과 정서적 반응을 먼저 이해하는 일입니다. 나를 바로 알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이해하는 태도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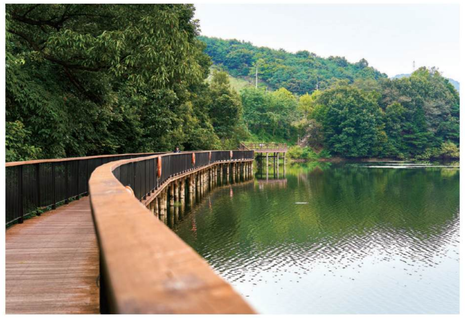
전주 아중호수 둘레길 & 아중호수도서관

물결과 음악이 전하는 다정한 안부

지친 일상에서 마음의 숨고르기가 필요한 날이 있다.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고 싶을 때, 전주 아중호수는 다정한 쉼터가 되어준다. 도시의 소음에서 살짝 비켜선 이곳은 잔잔하게 흔들리는 물빛과 아늑한 산책로, 그리고 호수 위에 살포시 떠 있는 도서관이 찾아온 이들을 따스하게 맞아준다. 특별한 계획이나 거창한 목적이 없어도 좋다. 그저 가벼운 차림으로 찾아와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고, 호수 위 도서관에 앉아 차분히 음악을 듣다 보면 지쳤던 마음에 어느새 넉넉한 여유와 온기가 차오른다.

발걸음 가볍게 누르는 물빛 산책로

아중호수를 감싸며 길게 이어진 약 2.4km의 순환형 수상 데크길은 경사가 없고 평탄하게 잘 조성되어 있다. 어린아이의 작은 발걸음부터 느린 어르신의 걸음,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방문객까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참 고마운 길이다. 호수 위를 누비듯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전해지는 나뭇길의 느낌과 잔잔하게 불어오는 호수 바람은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트여준다. 산책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풍경도 정겹다.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 이어폰을 끼고 한가로이 거니는 이, 벤치에 가만히 앉아 바람을 맞이하는 이들까지 저마다의 속도로 호수의 시간을 누린다. 중간중간 마련된 넓은 쉼터에 서서 수면 위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윤슬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에 쌓였던 복잡한 생각들이 잔물결과 함께 순하게 흘러내려 간다. 해질녘이 되면 데크길을 따라 은은한 조명이 켜지며 한층 더 로맨틱하고 안락한 밤 산책의 운치를 선사하니, 어느 시간에 찾아도 호수는 변함없는 위로를 건넨다.



LP 선율에 마음을 얹는 호수 위 음악 도서관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호수 물결 위에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아늑하게 들어선 '아중호수도서관'을 만나게 된다. 전주시가 조성한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소리와 풍경을 함께 누리는 감성적인 공간이다. 안으로 들어서면 탁 트인 창밖으로 호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한쪽에는 클래식과 재즈, 힙합 등 다채로운 LP와 CD 음반이 정갈하게 구비되어 있다. 마음에 드는 음반을 골라 턴테이블에 올리고 헤드폰을 쓰면, LP 특유의 따뜻하고 투박한 아날로그 선율이 흐르며 나만을 위한 음악 카페에 들어선 듯 깊은 몰입감을 준다. 생생한 연주 실황을 감상할 수 있는 '소리담' 공간과 편안하게 읽기 좋은 에세이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잔잔한 음악을 배경 삼아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끼듯 잠시 나만의 시간을 누려보길 권한다.

아중호수도서관 I 전주시 덕진구 아중호수길 131
문의 I 063-281-8617

병원소식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1~4주기 연속 획득

마음사랑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4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번 인증은 지난 5월 실시된 정신의료기관 인증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안전보장활동 및 질 향상 활동,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전반적인 평가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증조사단은 종합의견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인간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임직원의 열정에 존경을 표하며 인증조사의 준비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의료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하며 본원의 의료서비스와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번 인증은 모든 임직원이 환자 중심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본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인증기간 2026년 7월 19일 ~ 2030년 7월 18일

제28회 마음사랑정신건강세미나 개최

4월 17일, [정신건강 실천에서의 오픈다이얼로그, 당사자 중심 접근의 실제] 를 주제로 '제28회 마음사랑정신건강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픈다이얼로그의 의의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가족지원가의 경험을 통해 대화 기반 개입의 탐색으로 정신건강 종사자의 인본주의적이고 통합적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1강 '가족지원가의 실천 경험을 통해 본 대화 기반 개입'(국립정신건강센터 가족지원가 김영림) 2강 '오픈다이얼로그의 정신건강 실천 의의와 적용 사례'(다원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김성수)로 진행됐으며, 최신 이론과 현장 중심의 실천 경험을 함께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병원, 보건소,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등 지역 내 정신건강 유관기관 종사자 및 수련생 150여 명이 대면으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오픈다이얼로그연구소장 및 가족지원가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화 기법과 다양한 적용 사례를 통해, 기존 전문가 중심 개입을 넘어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다학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본원은 매년 정신건강 관련 시의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역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직원 화합행사, 함께 걷는 초록길 힐링나들이이

5월 15일, 직원 소통과 화합을 위한 '초록길 힐링 나들이'가 '임실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황토길과 편백나무숲을 걸으며 자연 속의 여유를 느끼고, 롤러코스터 짚라인 체험과 다양한 조별 활동을 통해 서로 웃고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늘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직원들에게 이번 나들이는 단순한 야외행사를 넘어, 바쁜 업무 속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가고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쉼표 같은 시간이었다.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더욱 밝고 건강한 마음사랑병원이 만들어지듯 이번 나들이에서 나눈 웃음과 위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응원의 마음이 앞으로의 일상 속에서도 오래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따뜻한 에너지가 병원을 찾아주는 모든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자연스레 전해져, 마음을 치유하는 또 하나의 힘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6 상반기 인산인 및 모범직원 표창

7월 14일, 2026년 상반기를 결산하며 '인산인(仁山人)', '모범직원'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본원 문화센터에서 진행했다. '인산인'은 병원발전에 공헌한 1인을 선발하여 상패와 함께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포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간호부 나설이 책임간호사가 선정되었다. 이어서 타부서 직원에게 귀감이 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에게 '모범직원' 상을 수여하였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직원들의 진심어린 축하박수와 격려가 이어져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처럼 본원은 상·하반기와 분기별로 다양한 직원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사기진작과 더불어 자긍심 고취를 도모해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산인 간호부 책임간호사 나설이

모범직원 진료부 진료과장 곽준 / 약제팀 사원 박경희 / 총무팀 유미자 / 구매영양팀 윤경아
간호부 주임간호사 설민우 / 주임간호사 정다운 / 주임간호사 정민재 / 보호사 황병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병원 방문

7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마음사랑병원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진료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동과 치료시설을 둘러보며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현장을 살폈다. 이어 지역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정신의료기관의 역할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보다 나은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재단소식

자인플러스병원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7(서노송동) 063-281-8888

환우에게는 위로를, 어린이에게는 꿈을

인산의료재단 자인플러스병원은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환우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환우와 보호자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 위한 '어버이날 효(孝) 잔치'를 열어 가야금·아쟁·대금연주와 판소리, 트로트공연 및 선물추첨 이벤트를 열었고, 이어서 5월 16일에는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의료체험 캠프'를 진행해 간호사, 재활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산의료재단 자인플러스병원은 앞으로도 치료를 넘어 환우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지역사회에는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별관 2층) 063-273-6995~6

자살유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실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7월부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자살유족의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게 된다. 이 사업은 심리·정서지원뿐 아니라 유족이 겪는 환경·경제적 어려움까지 함께 지원하며, 애도 상담과 심리부검 등을 통한 심리적 회복 지원과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사후행정처리, 법률행정처리, 학자금지원 등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환경·경제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같은 상실을 겪은 유족들이 경험과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유족자조모임 '별꽃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유족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복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 4길 11(정읍시보건소 후관) 063-535-2101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샘초롱클럽하우스는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가족교육」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과 중요성을 함께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정신질환의 특성과 치료 과정, 약물치료의 중요성, 재발 예방을 위한 가족의 역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가족의 스트레스 관리 및 소진 예방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회복에 중요한 힘이 된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였다. 또한 회원과 가족들은 서로의 경험과 어려움을 나누며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회복 과정에서 가족 간의 지지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완주군 삼례읍 삼봉8로 10-10, 완주군보건소 2층 063-262-3066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출장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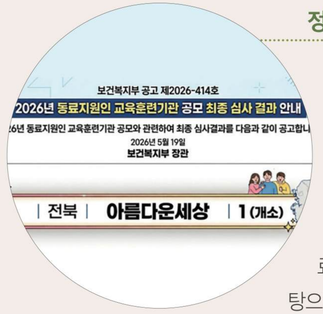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며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출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출장상담소는 아파트와 사업체 그리고 학교 등 주민들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신건강 상담과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며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인 편안한 상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접근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이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하며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63 063-223-4567

따뜻한 나눔과 선율로 이어가는 회복의 여정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회원들의 중독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센터는 우양재단으로부터 감자 10kg을 기부받아 회원들과 함께 '감자파티'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직접 감자로 요리를 만들고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회복 경험을 공유하고 중독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화합과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센터는 우양재단이 공모한 '소일거리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회복자와 참여자가 함께하는 통기타 강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기타 연주에 재능이 있는 센터 등록 회복자를 강사로 모셔, 기타 배우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진행된다. 이를 통해 회복자에게는 정당한 소일거리와 사회적 역할을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취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음악을 통해 예민해진 마음을 녹이고 삶의 활력을 얻음으로써, 회원들의 지속적인 단주 유지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

전주시 덕진구 아중7길 9-5 063-244-2816

보건복지부「동료지원인 교육훈련기관」선정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정신재활시설 아름다운세상이 보건복지부 지정「2026년 동료지원인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23개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전북권역 대표 기관으로 지정되어 동료지원인 전문 양성체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회복 경험을 가진 정신건강 당사자가 전문 교육을 통해 동료의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료지원인 사업은 '경험은 가장 강력한 자격이며, 회복은 함께할 때 더욱 힘을 얻는다'는 가치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회복 경험을 새로운 희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아름다운세상은 그동안 축적해 온 동료지원 실천 경험과 직업재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당사자가 지역사회 회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회복의 경험이 또 다른 회복의 희망이 되는 회복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고객의 소리함에 접수된 친절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서비스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총무팀 **임화숙**

마음클리닉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먼저 밝은 미소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주셔서 제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집니다. 병원을 빛내주시는 여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꼭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료부 **고요한** 진료과장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보호자와 소통도 잘 해주시고 면담도 신경써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지금은 퇴원하셔서 본가에 계신데 입원해 계실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약물에 대해서도 설명 잘 해주시고 다시 생각해도 너무 좋은 주치의셨어요. 항상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힘써주시는 고요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심신치료센터 **이승주** 간호사

나이트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간호실습생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상태를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병동 수간호사와 실습 담당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먼저 다가가 침착하게 대처해주신 모습에서 따뜻한 배려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선생님께 감사와 칭찬을 전합니다.

심신치료센터 **김동규** 보호사

환자분들을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또한 신규 보호사들이 낯선 환경과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고, 동료들과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환자와 동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며 긍정적인 병동 분위기와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보호사님께 감사와 칭찬을 전합니다.

마음클리닉 **최현규** 간호사

여러 번 반복되는 질문에도 늘 친절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드레싱해 주시는 모습에서도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늘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시는 최현규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더 힘내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2026 가족교육

전북도민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유대감 형성을 돕기 위해 가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사회사업팀 **063-240-21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부	강사	2부	담당
3월	정신질환 약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남인 연구소장	• 동료지원가가 전하는 정신질환자 마음 이해하기 • 낫병원 · 병원기반사례관리 · 동료상담	사회사업팀
6월	• 뇌과학으로 이해하는 중독 (의지문제가 아닌 뇌의 병) • 알콜중독 및 도박중독과 공존질환 • 중독 가족들의 태도 및 대처방법	곽준 진료과장	• 중독동료지원가가 전하는 회복 경험	사회사업팀
7월	돌봄 과정에서 생기는 트라우마 -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반응 탐색	김용 교육수련부장	• 공감과 연민, 환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마음 돌봄	사회사업팀
9월	아동청소년 주요 정신질환의 이해 및 의사소통 방법	진료부	•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형성 • 입원한 아동 청소년 면담 시 유의사항	사회사업팀
10월	정신질환 음성증상과 일상 재활	김보영 진료부원장	• 동료지원가와 함께하는 간담회	사회사업팀
11월	재발의 전조증상 및 대처방법	고요한 진료과장	• 심리검사의 이해 및 나의 마음 건강 알아차림 - 간단한 성격 검사로 각자의 성향을 알아보고, 가족 내 다양한 성격을 존중하는 시간	임상심리실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마음사랑병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셔틀버스(낮병원 포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모래내, 서신동, 송천동, 호성동**까지 노선을 확장하여 운행합니다.
탑승 위치 및 시간 확인 후, 많은 이용 바랍니다.

덕진구방면_ 모래내, 서신동, 송천동, 호성동

노 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병원 출발	08:30	09:30	11:10	13:30	15:00	16:10
고려병원	생략	09:40	11:20	13:40	생략	16:20
안골(파리바게트)	생략	09:45	11:25	13:45	생략	16:25
모래내시장 버스승강장	08:55(농협)	09:50	11:30	13:50	15:25(농협)	16:30
안골(항연유외과)	09:00	생략	생략	생략	15:30	생략
수한방 병원(고려병원 건너편)	09:04				15:34	
소양(농협)	09:11				15:41	
병원 도착	09:15				15:45	
대성학원	생략	09:55	11:35	13:55	생략	16:35
전북일보빌딩 버스승강장		10:00	11:40	14:00		16:40
종합경기장 버스승강장		10:03	11:43	14:03		16:43
박천수 정형외과 버스승강장		10:05	11:45	14:05		16:45
서신e편한세상 건너편 버스승강장		10:10	11:50	14:10		16:50
하가지구 영무예다음 버스승강장		10:13	11:53	14:13		16:53
송천동 롯데마트 맥스		10:18	11:58	14:18		16:58
송천동 KFC		10:20	12:00	14:20		17:00
송천도서관 버스승강장		10:25	12:05	14:25		17:05
호성 동신아파트 버스승강장		10:30	12:10	14:30		17:10
전주역(화성 메디케어)		10:35	12:15	14:35		17:15
럭키아파트		10:37	12:17	14:37		17:17
병원 도착		10:45	12:25	14:45		17:25

*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운행)

평화동방면

노 선	1회	2회	3회	4회	5회
병원 출발	08:50	10:20	12:35	14:15	16:00
아중역 버스승강장	09:01	10:31	12:46	14:26	16:11
아중리 지하보도(파리바게트)	09:03	10:33	12:48	14:28	16:13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09:06	10:36	12:51	14:31	16:16
현대자동차(KT옆)	09:10	10:40	12:55	14:35	16:20
경원동 기업은행	09:14	10:44	12:59	14:39	16:24
남문치과	09:16	10:46	13:01	14:41	16:26
서서학동 화신탕	09:18	10:48	13:03	14:43	16:28
평화동 지하보도(전주농협)	09:20	10:50	13:05	14:45	16:30
새강병원	09:22	10:52	13:07	14:47	16:32
광진공작아파트 버스승강장	09:25	10:55	13:10	14:50	16:35
남양황실아파트 버스승강장	09:28	10:58	13:13	14:53	16:38
화산체육관 버스승강장	09:32	11:02	13:17	14:57	16:42
한일고 지하보도	09:35	11:05	13:20	15:00	16:45
종합경기장 버스승강장	09:37	11:07	13:22	15:02	16:47
전북은행 본점 버스승강장	09:41	11:11	13:26	15:06	16:49
전북대병원 입구 버스승강장(금암고물상)	09:44	11:14	13:29	15:09	16:54
대자인병원 응급실	09:47	11:17	13:32	15:12	16:57
전주역(화성 메디케어)	09:49	11:19	13:34	15:14	16:59
굴다리(천안당 호두과자)	09:52	11:22	13:37	15:17	17:02
병원 도착	10:00	11:30	13:45	15:25	17:10

*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방면

노 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병원 출발	08:40	10:00	11:20	13:10	14:40	16:20
전주역(웨딩의전당 건너편)	08:53	10:13	11:33	13:23	14:53	16:33
건지산이지움아파트 버스승강장	08:55	10:15	11:35	13:25	14:55	16:35
안디옥교회 정문	08:56	10:16	11:36	13:26	14:56	16:36
전주덕진소방서(119안전체험교실)	08:57	10:17	11:37	13:27	14:57	16:37
삼성화재빌딩	09:03	10:23	11:43	13:33	15:03	16:43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천변)	09:05	10:25	11:45	13:35	15:05	16:45
시외버스터미널(으뜸병원)	09:06	10:26	11:46	13:36	15:06	16:46
한국은행 옆(공간타일도기)	09:10	10:30	11:50	13:40	15:10	16:50
모래내(농협)	09:15	10:35	11:55	13:45	15:15	16:55
안골(항연유외과)	09:18	10:38	11:58	13:48	15:18	16:58
전북약국	09:20	10:40	12:00	13:50	15:20	17:00
수한방병원(고려병원 건너편)	09:22	10:42	12:02	13:52	15:22	17:02
병원도착	09:35	10:55	12:15	14:05	15:35	17:15

*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용진·봉동방면

노 선	1회	2회
병원출발	08:30	15:30
용진 대영아파트(버스승강장)	09:00	15:55
율소리(전북현대모터스 표지판)	09:05	16:05
둔산리(화산 한우 직판장)	09:20	16:10
LH 삼봉지구(큰 도로변 횡단보도)	09:35	16:25
봉동주공(GS25 버스승강장)	09:45	16:30
용진 마그네다리(봉동 삼거리 GS25 맞은편)	09:48	16:35
용진 상운길(용두사)	09:50	16:40
용진파출소	10:00	16:45
병원 도착	10:15	17:15

*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화·수·목 운행)

| 문 의 063-240-2100

후원회

당신의 사랑으로 나눔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마음사랑후원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로 '인간사랑'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내부 직원 및 외부 후원자 약 400여 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 및 보호자에게 경제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참여방법

사회사업팀 063-240-2150 농협 351-1066-5417-13 / 마음사랑후원회

- **정 기 후 원** CMS 후원신청서 작성 후 직접 지정해 주신 계좌에서 매월 5,000원 이상이 자동이체되는 방법입니다.
- **비정기 후원** 원하시는 금액을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물 품 후 원** 의복, 식품, 도서 및 생활필수품 등 환우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 후원해주신 분(외부 271명)

(유)천보그린, (주)내외정보기술, (주)동남의료약품, (주)비엔엠홀딩스, (주)인스나인, 가재숙, 강경옥, 강경희, 강나루, 강봉석, 강인숙, 강정선, 강찬오, 강희봉, 경대용, 고병훈, 고소영, 고순화, 곽동호, 곽윤복, 곽태연, 구도형, 권선미, 권용주, 길정호, 김경조(우아식품), 김광현, 김기승, 김내영, 김달진, 김대용, 김동렬, 김동철, 김미경, 김복순, 김빈, 김서연, 김선영, 김성숙, 김성순, 김성태, 김소연, 김소형, 김순희, 김승재, 김언경, 김영광, 김영실, 김영희, 김용옥, 김용진, 김용현, 김윤경, 김윤정, 김윤종, 김은애, 김은지, 김을수, 김정삼, 김정수, 김정연, 김정은A, 김정춘, 김정학, 김정환, 김중은, 김지연, 김진경, 김진형, 김창헌, 김철호, 김현기, 김현민, 김현성, 나정현, 노경찬, 노옥임, 노진성, 노현정, 도움약품, 류명순, 류세나, 류형선, 박경철, 박근영, 박근혁, 박금옥, 박기성, 박남기, 박문규, 박민실, 박병섭, 박병준, 박삼환, 박상규, 박영근, 박요창, 박윤희, 박은경, 박자순, 박정현, 박지민, 박지훈, 박지희, 박천미, 박현경, 박현숙, 박혜빈, 백용님(마린수중), 백조아, 백철호, 백현찬, 서경태, 서소현, 선옥녀, 선진태, 성백준, 성병주, 성병희, 성윤정, 성정현, 송병섭, 송인미, 송중훈, 송지연, 송호, 신명옥, 신은옥, 신필호, 안미영, 안정희, 안훈규, 양규정, 양은숙, 염성국, 염혜영, 오사랑, 오은영, 오재천, 오혜진, 용진상사(설진구), 용태진, 원경화, 원다혜, 유도근, 유봉상, 유수연, 유아람, 유은선, 유재명, 유재식(백상정보), 유창균, 유한회사후광(전북종합박스), 유해광, 유현희, 유호원, 육희정, 윤남순, 윤면재, 윤석용,윤성숙, 윤창수, 윤혜진, 은상봉, 이가은, 이경은, 이남숙, 이대한, 이동규, 이득녕, 이미숙, 이민지B, 이병관, 이성섭, 이성철, 이승연B, 이승주(A), 이승현, 이승환, 이연수, 이영일, 이영희, 이은희, 이의철, 이의철(한주상사), 이인재, 이정숙A, 이정우, 이정운, 이준영, 이지영, 이창원, 이현민, 이현승, 이현정B, 이현주, 이형구, 이형규, 이효숙, 이후정, 이희신, 이희진, 임경숙, 임경환, 임두수, 임용환, 임종학, 임지영, 장선호, 장연, 장은옥, 장한보, 전석원, 전세환, 전순옥, 전은신, 전현수, 전현순, 정경미, 정미란, 정병우, 정순심, 정순태, 정승현, 정연주, 정영석, 정온누리, 정윤숙, 정의성B, 정진권(보성수산), 정충용, 정혜경, 조선우, 조순형, 조우진, 조옹호, 조형운, 진영준, 차동훈(서울우유아중보급소), 천창영, 최동현, 최상수, 최수석, 최수아, 최영식, 최윤경, 최윤규, 최인석, 최철민, 최화정, 킴스메디칼, 하혜란, 한대진,한성종((주)태종), 한승희, 한시종, 한신혁, 한재근, 한현수, 허미란, 홍상표, 홍선우, 홍선화, 홍윤미, 홍인천, 홍진성, 황다은, 황성, 황승연, 황장혁, 황철현

26년 상반기 후원해주신 분(내부 126명)

강경식, 강원화, 강준혁, 강지은, 고요한, 고우리, 곽준, 권사라, 권옥희, 권은정, 권정은, 김강호, 김경민, 김구형, 김규혁, 김난영, 김만, 김민영, 김병배, 김보영, 김선주, 김성의, 김소리, 김연아, 김용, 김은진, 김은혜, 김이정, 김재연, 김정화, 김주빈, 김지태, 김하경, 김현희, 김희정, 나설이, 당명일, 박가령, 박광혁, 박상철, 박상헌, 박용현, 박윤섭, 박은선, 박지민, 박지하, 박찬숙, 박혜인, 배윤례, 백민재, 서지혜, 설민우, 송명재, 송봉용, 송슬기, 신정은, 안예슬, 안형숙, 양규리, 양세름, 염정휴, 오남수, 오수환, 왕우열, 용태영, 유미자, 유현정, 유혜림, 윤환희, 윤희상, 이건학, 이복순, 이승연A, 이승희, 이유진, 이인우, 이장효, 이정민, 이주혁, 이채을, 이춘재, 이하정, 이현미, 이현정A, 이혜숙, 이화자, 임덕임, 임혜지, 장고은, 전지예, 전형태, 정다운, 정민기, 정민재, 정상균, 정의성A, 정인례, 정진영, 정혜정, 조경형, 조윤, 조인정, 주진, 진봉섭, 진형택, 차미경, 천영자, 최금철, 최수정, 최채희, 최한재, 최혁석, 하근혜, 하나경, 하영숙, 한영은, 한진희, 홍수정, 홍윤미, 홍정숙, 홍정옥, 황새연, 황서현, 황의열, 황진자, 황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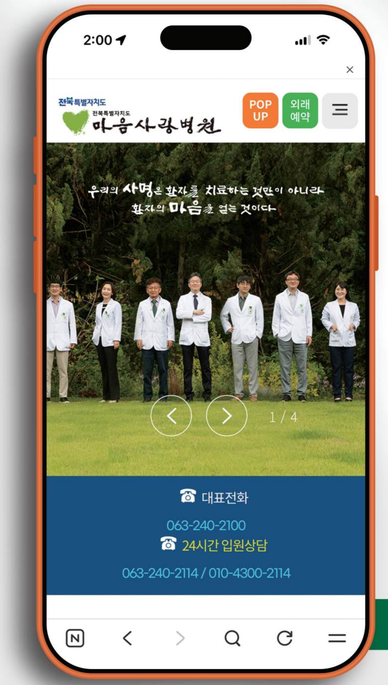
26년 상반기 자원봉사자 명단

구분		단체명	자원봉사자명
정서지원	예배	희년교회(11명)	김민수, 김성령, 노혜원, 박인순, 송진화, 오세형, 윤진섭, 임영옥, 정수영, 정윤혁, 정해숙
	미사	소양성당(3명)	서용자, 서철승, 안춘영
	다도	개인(1명)	김금남
문화지원	피아노 공연	개인(1명)	Richard
	플루트 강습	네오스플루트(1명)	이수진
생활지원	이미용	헤어나눔공작소(28명)	김설희, 김영배, 김윤자, 김은혜, 김해정, 김현숙, 두미림, 문효진, 박미정, 설동원, 송준섭, 신도빈, 유찬란, 육기순, 윤유진, 이명로, 이미경, 이은경, 이향희, 장후남, 전은숙, 정민주, 정은영, 최다솜, 최은별, 추은희, 황복기, 황재희
행사 · 캠페인 · 교육 지원 등		개인 자원봉사자(4명)	문일중, 박진배, 우창민, 최예지

'마음사랑후원회'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을 투명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집중치료 특성화 병동 운영

질환별 치료 단계별 맞춤 병동 운영으로 최적의 치료 환경 제공



보건복지부 지정 급성기 집중치료 병동
심신치료센터
365일 24시간 응급입원

안정기 병동
햇살클리닉

중독치료센터
알코올 · 도박 · 약물 · 인터넷

통합회복
여성안정 · 남성안정 통합병동

개방병동
사랑클리닉

노인성질환
원클리닉

맞춤형 치료환경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최상의 정신건강 치료를 실현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해월리 496-28)
대표전화 (24시간 입원상담) 063-240-2100 / 063-240-2114
www.maeumsarang.co.kr

우리의 **사명**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1~4주기 연속 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2022 의료급여
2025 건강보험 정신과 1등급

공공보건의료평가
5년연속 최우수기관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은 고객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 청와대 — 대통령이 칭찬하신 마음사랑병원
-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 여성부 인증
- 남녀고용평등 대통령상 수상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
- 고용노동부 — 노사문화유공 대통령표창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 평생학습대상 우수상 수상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 근로자 건강증진 사례 우수상 수상
- 기업학습 우수사례 기관 선정 / 노사 한누리상 수상
-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